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22호
2023. 9. 1.

- 경기 선순환 유도 위한 SOC 투자 확대 필요
-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재해현황
- 2022년 ENR 250대 건설기업 매출 동향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경기 선순환 유도 위한 SOC 투자 확대 필요

- 내년 SOC 정부 예산안 26.1조 원(↑1.1조 원),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부족 -

2024년 정부 예산(안) 총 656.9조 원

-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65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음.
- 2024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약자복지, 미래준비, 양질의 일자리, 국방·안전·법치 등 핵심 정책과제에 투자를 계획함.

<표 1> 2024년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 조 원)

구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B-A)
◆ 총 지 출	638.7	656.9	18.1 (2.8%)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7.5%)
2. 교 육	96.3	89.7	-6.6 (-6.9%)
3. 문화·체육·관광	8.6	8.7	0.1 (1.5%)
4. 환 경	12.2	12.6	0.3 (2.5%)
5. R&D	31.1	25.9	-5.2 (-16.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1.3 (4.9%)
7. SOC	25.0	26.1	1.1 (4.6%)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1.0 (4.1%)
9. 국 방	57.0	59.6	2.6 (4.5%)
10. 외교·통일	6.4	7.7	1.2 (19.5%)
11. 공공질서 및 안전	22.9	24.3	1.4 (6.1%)
12.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0.9 (-0.8%)

자료 : 기획재정부.

■ 올해 SOC 예산은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중심으로 26.1조 원 편성

- SOC 예산은 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강화, K-Pass,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둬.
-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수도권 GTX 등의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의 조성 지원에 투자
- (안전투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터널 등의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 적기 추진 및 철도 작업자 안전시설 등과 같은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
- (대중교통)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K-Pass를 도입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비 지원을 추진
- (교통혁신) 자율주행차 상용화, 미래 모빌리티 선점, 도심항공(UAM) 실증, 정밀위치 서비스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 조성

<표 2> 2024년 SOC 예산안

(단위 : 억 원)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안	비고
도로부문	78,408	78,705	· 건설(5.2 → 5.1조) · 안전 등(2.0 → 2.3조)
철도부문	75,968	80,501	· 건설(4.3 → 4.2조) · 안전 등(2.1 → 2.5조)
항만수자원부문	34,562	42,490	· 건설(1.5 → 1.6조)
지역 및 도시부문	22,631	18,253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신규} (135억 원)
물류, 항공, 산단 등	38,311	41,400	· 항공·공항(0.3→0.8조)
합계	249,881	261,349	전년 대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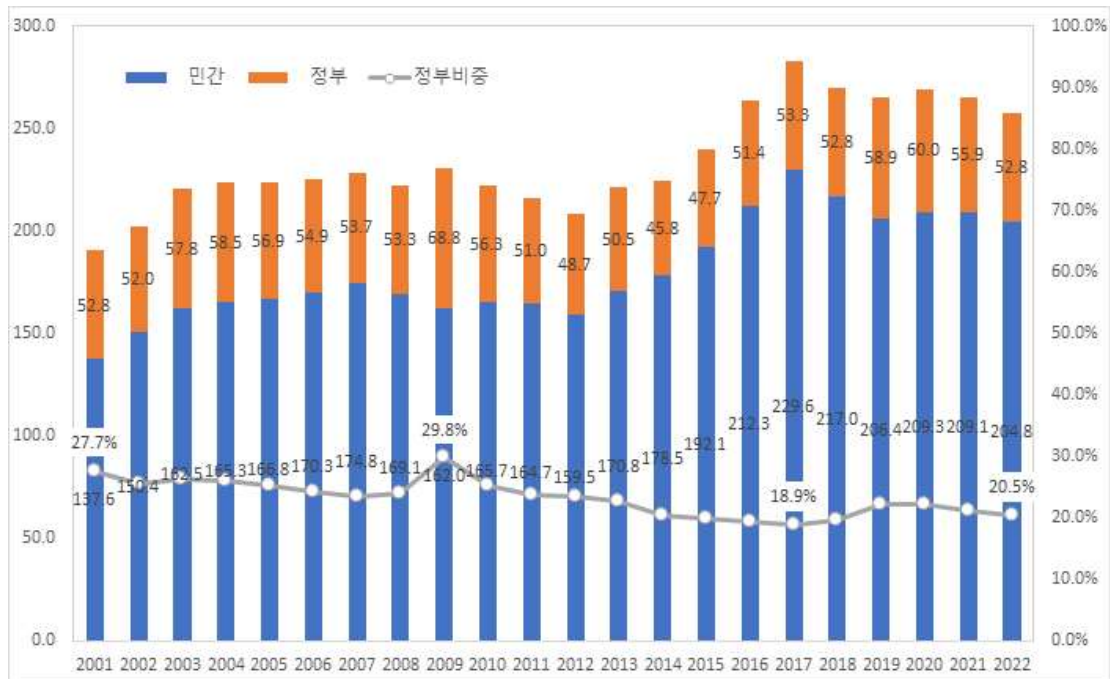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 2000년대 건설투자 민간부문이 주도한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 커져

- 2001~2022년 건설투자는 연평균 1.6%씩 늘어났으며,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확대에 의해 증가함.
- 건설투자는 2022년 257.6조 원으로 2001년 대비 35.5% 증가하였음. 세부적으로 민간부문은 2001년 대비 2022년 67.2조 원이 늘어, 증가율 48.8%를 보인 반면, 정부부문은 2001년 대비 2022년 242억 원 증가에 그치며, 증가율은 0.0%를 나타냄.
- 또한, 건설투자에서 정부부문의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7.7%에서 2022년 20.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그림 1> 연도별 주체별 실질건설투자 추이(2001~2022)

(단위 : 조 원,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 중국의 경기 위축 및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 지난 7월 27일 금리를 0.25%p 상향하였음. 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8월 24일 금리를 동결하였음. 미국과 2%p의 금리 격차가 있어 우리나라 투자 자본의 이동 및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상황임.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위축 양상을 보이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와 더불어 부동산 부문의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제성장 제약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2010년 452억 달러에서 2022년 12억 달러로 급감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2.9조~4.1조 원 부족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7.7조~58.8조 원 규모로 2024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 시 2.9조~4.1조 원 부족한 것으로 추정됨.
 - SOC 투자의 2024년 예상 지출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4.7조 원 내외의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2.3~2.4%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6.7조~58.8조 원

임. 예상 지출 규모 대비 3.5조~4.7조 원이 부족한 수준임.

<표 3> 2024년 SOC 지출 과부족 규모 분석 및 추정

(단위 : 십억 원)

회계연도	가정		A.적정 지출 규모 (전망치 반영)	B.예상 지출 금액(=a+b+c+d)					E.과부족 금액 (=B-A)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a.정부 지출 (국가재정 운용계획)	b.지방정부 지출 (예측)	c.민간투자 지출 (예측)	d.공기업 투자 지출 (예측)		
한국은행	2.3%	2.4%	57,670	54,731	26,100	16,938	1,496	10,197	-2,939
기획재정부	2.4%	2.3%	58,828	54,722	26,100	16,938	1,493	10,191	-4,106

경기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부투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도 필요

-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1조 원이 증액되었으나,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부족함.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경기의 선순환 유도 및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함.
 - 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소비, 투자, 순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비와 순수출의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투자가 중요함. SOC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고 경기 선순환 유도에 기여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SOC 시설물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함.
- 한편, SOC 분야 결산액을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예산 집행 과정의 효율성 도모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0~2021년 SOC 분야 불용액은 총 14.4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축소되고 있지만, 연평균 1.2조 원에 이르고 있음.
 - 정부 SOC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투자의 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엄근용(연구위원 · kyeom@cerik.re.kr)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재해현황

-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수는 가장 적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 '23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171명, 최근 10년간 가장 낮아¹⁾

- '23년 상반기 국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고사망자)는 392명이며, 건설산업은 171명(전체의 43.6%)으로 집계됨.
 - 건설산업은 전년 동기(222명) 대비 51명(-23.0%) 감소하였음. 전체산업은 동기간 446명에서 392명으로 54명(-12.1%) 감소하였으나, 건설산업 감소분을 제외하면 3명 감소함.
- '23년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며, 감소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건설산업) '23년이 171명으로 가장 적으며, 다음으로 '15년(178명), '22년(222명) 순임. 사고사망자 감소율도 '23년이 -23.0%로 가장 높았고, '15년(-22.9%), '18년(-11.3%) 순임.
 - (전체산업) 건설산업과 마찬가지로 '23년 사고사망자 수가 392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으며, '15년(436명), '22년(446명) 순임. 감소율은 '15년(-17.6%), '23년(-12.1%) 순임.
 - 최근 10년간 전체 사고사망자 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8%임. '23년 43.6%는 '15년(4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임.

<그림 1> 최근 10년 상반기 사고사망자 수(명)



<그림 2> 최근 10년 상반기 사고사망자 감소율



주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6월말 산업재해현황('14년~'23년).

1) 고용노동부에서 8월 25일 발표한 '2022.6월말 산업재해현황'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고용노동부에서 8월 30일에 발표한 '2023.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부가통계 결과(잠정)'는 8월 25일에 발표한 현황과 집계기준 등이 상이하여 두 자료의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다름. 8월 30일 발표한 자료는 '22년부터 집계한 현황으로 사고사망재해 추이분석에 사용함에는 한계가 있음.

■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0.73‰,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고 감소율은 가장 높아

- '23년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73‰로 산업평균인 0.19‰보다 약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 동기(0.97‰) 대비 24.7%가 감소하였으며, 전체산업도 전년 동기(0.23‰) 대비 17.4% 줄었음.
- 올해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감소율은 24.7%로 가장 높았음.
 - (건설산업) '15년 사고사망만인율이 0.69‰로 가장 낮았으며, '23년(0.73‰)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감소율은 '23년이 24.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음.
 - (전체산업) '23년 사고사망만인율이 0.19‰로 가장 낮았으며, '23년 감소율은 '15년(1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3> 최근 10년 상반기 사고사망만인율(‰)



<그림 4> 최근 10년 상반기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율



주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6월말 산업재해현황('14년~'23년).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와 사고사망만인율, '20년 이후 지속적 감소

- 상반기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은 '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23년 수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임.
 - 사고사망자 수는 '20년 254명에서 '23년 171명으로 32.7% 줄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동기간 1.20‰에서 0.73‰로 39.2%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23년 상반기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43.6%를 차지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산업 평균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산업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수영(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sooyoung.choe@cerik.re.kr)

2022년 ENR 250대 건설기업 매출 동향 분석

- 해외 매출 규모, 전년 대비 7.7% 증가한 4,285억 달러 기록 -

250대 건설기업의 2022년 해외 매출 규모, 4,000억 달러 수준 회복

- 2021년에 3,978억 달러로 4,000억 달러를 밑돌았던 ENR 250대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 규모가 2022년에는 4,000억 달러대를 회복하며 반등함.
- 250대 기업의 글로벌(해외+국내) 매출 규모는 2조 1,5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국내 매출 규모는 1조 7,2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늘어남.
- 해외 매출이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지만 2012년 이후 지속하고 있는 감소 추세 전환에는 실패함.
- ENR에 따르면 작년 250대 기업 순위에도 포함됐던 237개 기업 중에 65%가 2022년에 해외 매출이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이익을 거둔 155개 기업 중 91%가 해외건설시장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ENR 250대 건설기업의 글로벌(국내+해외) 매출 및 해외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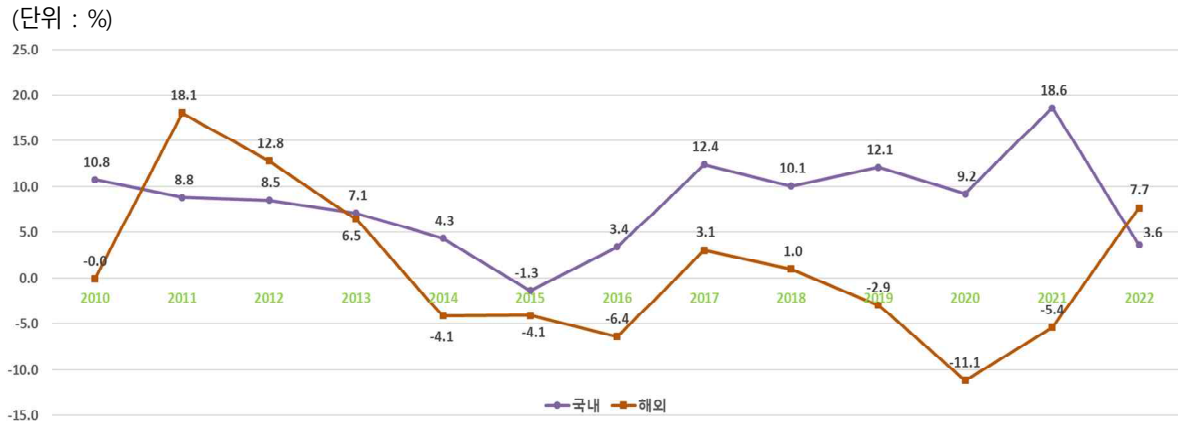


자료 : ENR.

- 2022년의 해외 매출 성장률 7.7%는 2011년 18.1%, 2012년 1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ENR 250대 기업의 해외 매출은 지난 3년(2019~2021년) 동안 연평균 -6.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 250대 기업의 국내 매출 성장률 3.6%는 지난 2016년(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7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2> ENR 250대 건설기업의 국내와 해외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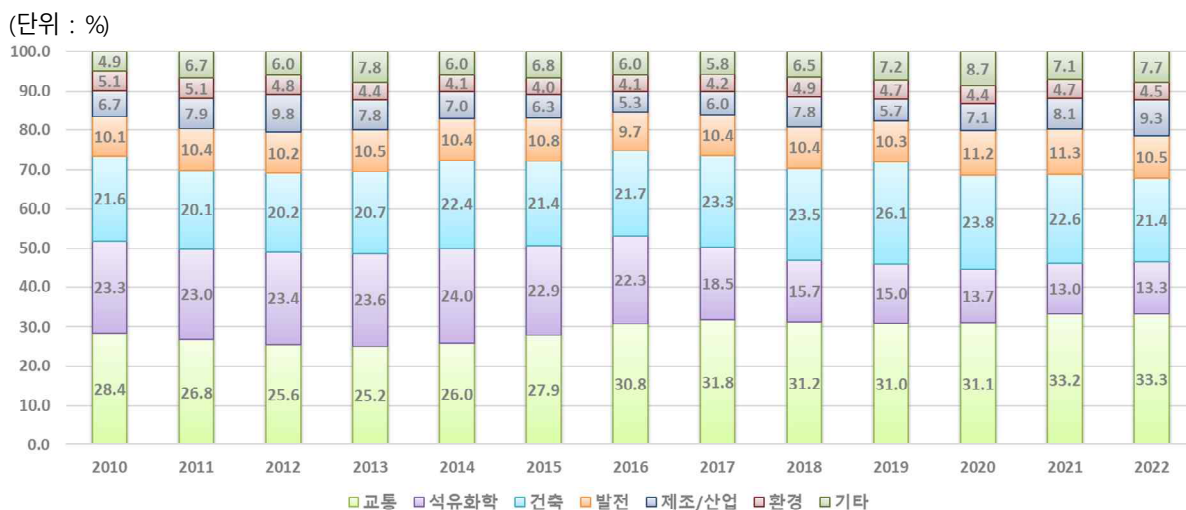


자료 : ENR.

전체 해외 매출 중 공종별로는 교통, 건축, 석유화학 부문이 68%(2,914억 달러) 기록

- 2021년 1,321억 달러를 기록했던 교통부문은 7.9% 증가한 1,426억 달러로 전체 해외 매출의 33.3%를 차지함.
- 2021년 899억 달러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했던 건축부문은 918억 달러로 2.1%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은 21.4%로 전년 대비 1.2%p 하락함.
- 2021년까지 7년 연속 감소했던 석유화학 부문은 5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반등함. 또한, 전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3%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함.

<그림 3> 공종별 해외 매출 비중 추이



자료 : ENR.

■ 지역별로는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이 70%(3,020억 달러) 차지

- 2021년 1,130억 달러를 기록했던 유럽 지역의 해외 매출은 1,128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며 전체 매출의 26%를 차지함.
 - 2021년 976억 달러였던 아시아는 11.9% 증가한 1,092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3년 만에 1,000억 달러대를 회복함. 전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유럽에 이은 2위를 기록함.
 - 2021년 485억 달러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매출 규모를 기록했던 중동 지역은 4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며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전체 해외 매출의 12%를 차지하며 전년과 동일한 비중을 기록함.
 - 북미 시장의 일부인 캐나다 시장의 경우 2021년 188억 달러보다 27.2% 증가한 23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 지역은 5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함. 두 지역의 매출을 합친 규모는 전체 해외 매출의 19% 수준임.

<그림 4> 지역별 해외 매출 비중 추이



- 국가별 점유율 순위는 중국(27.5%), 프랑스(14.7%), 스페인(13.9%), 미국(6.2%), 한국(6.1%), 일본(4.6%), 튀르키예(4.4%), 이탈리아(3.8%) 순임.
 - 우리나라는 12개 기업이 순위에 포함되며 총 263.3억 달러의 해외 매출로 점유율 5위를 차지함. 매출 규모로는 전년 대비 15.8% 증가했으며 점유율로 0.4%p 상승함.
 - 프랑스 방시(Vinci)를 포함해 상위 10개 기업의 해외 매출을 합친 규모는 전체 해외 매출의 43.5%로 전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함.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12위 기업	VINCI	ACS	CCCC	BOUYGUES	STRABAG	CSCEC	SKANSKA	PCCC	CRCC	FERROVIAL	HYUNDAI E&C	EXYTE
우리나라 기업 순위	HYUNDAI E&C(11위)	삼성ENG(22위)	삼성물산(25위)	현대ENG(32위)	대우건설(48위)	GS건설(54위)	포스코E&C(63위)	SK에코플랜트(77위)	DL E&C(95위)	롯데건설(130위)	쌍용건설(145위)	한화건설(175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